

■ ■ ■ 감동적인 합격기

[2018년도 5급 공채 국제통상직렬 최연소 합격]

아주 가치 있는 시험입니다



오 성 택

- 인천 연수고등학교 졸업
-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재학 중
- 2018년도 5급 공채 국제통상직렬 최연소 합격

I. 여는 말

안녕하세요, 2018년 5급공채 국제통상직렬(선택과목: 일어)에 최종합격한 오성택입니다. 운 좋게도 직렬 최연소 합격의 영광을 얻어 이렇게 수기를 쓰기까지 이르렀지만, 제가 남들보다 유달리 뛰어나다거나 특별히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합격의 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수험생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성공적으로 그것을 움켜질 수 있게끔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본 수기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대비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에 관해 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으로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실까 싶어 용기 내어 몇 자 적습니다.

II. 과목별 수험공부방법

1. 제1차시험

(1) 헌법

2016년 2학기에 학교를 다닐 적에, 학교 법과대학에서 열린 헌법 수업을 수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를 닦은 뒤, 금동흙 강사님의 '8·80 특강'을 인강으로 수강하고, 동 강사님의 '최신판례

무료특강'과 '조문 무료특강'을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초시(2017년) 때도 재시 때도 이렇게 헌법을 준비한 결과 안정적인 점수를 냈습니다. 18년도는 이른바 '헌법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헌법 과락률이 높았던 것으로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정도의 준비만으로도 아주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인사혁신처에서 2018년도와 같은 헌법 출제경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니만큼, 헌법은 관례보다도 조문 위주의 공부가 더 바람직한 접근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2) PSAT

PSAT은 초시때 총 4시간 정도로 구성된 논리논증특강(여성곤 강사님)을 들은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강의를 듣거나 강사 모의고사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현장감각을 위해 법률저널에서 주관하는 전국모의고사도 몇 번 응시하긴 했으나, 문제 퀄리티가 제 취향이 아니었는지라 마지막 모의고사 날에는 모의고사 문제지는 그냥 버리고 제가 실제 시험지 크기로 뽑아간 과거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PSAT형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때문에 PSAT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관해서 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다른 결론은, '오답노트를 철저히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틀리거나 애매하게/찍어서 맞춘 문제(이하 '틀린 문제'라 함)를 두고, 해당 문제의 유형(예: 논리추론형, 도표해석형, 법조문형)과 해당 문제를 틀린 원인의 유형(예: 함정에 빠짐, 문제가 고난이도, 시간부족으로 인한 페이스 붕괴, 단순실수)을 기록하고, 40문제를 10문제씩 4개 구간으로 분류해 어느 구간에서 주로 많이 틀리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틀린 문제들에 대해 '내가 고른 답과 그 이유', '정답과 내가 그걸 고르지 못한 이유', '이 문제를 안 틀리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다음 번에 이러한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탐구했고, 그 탐구의 결과들을 전부 오답노트 공책에 기재했으며, 두고두고 다시 꺼내볼 만한 사항은 색깔펜 등으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번 회차에 내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무엇을 느꼈고, 이번에 느낀 것이 다음번에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떻게 반영되기를 희망하는지 등도 전부 글로 적었습니다.

오답노트를 쓰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비법이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쓰고 있는 것인지 저 스스로도 좀 민망합니다만, 저는 오답노트만 철저히 쓰는 방식으로도 PSAT 점수를 6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후반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PSAT 준비에 있어서는 오답노트에 관한 것 말고는 달리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모두에 정확히 동일히 적용되는 것으로서, 저는 이 세 과목이 모두 본질적으로 '정보처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애당초 동일한 과목이며 단지 정보가 제공되는 형태(줄글인지, 도표인지 등)만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론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서술할 필요도 없거니와 구분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합격하던 해 1차시험에서는 컷트라인과 크게 차이나는 점수를 기록하여 상위 3%정도의 성적으로 넉넉하게 합격했습니다.

정리하자면, PSAT 점수는 분명히 올릴 수 있으며, 그를 위해 방대한 양의 수험자료나 특수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PSAT 준비

의 시작도 끝도 전부 ‘기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제2차시험

(1) 논의의 방향

고시공부의 꽃인 2차시험이 어려운 본질적 이유는 ‘범위의 방대함’에 있다고 봅니다. 각 2차과목의 시험 수준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각 과목의 학부 3~4학년 수준에 해당하며, 따라서 2차시험은 결국 ‘시험범위가 (조금 많이) 넓은 기말고사’라고 프레이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고시공부는 내용의 난이도 그 자체 보다는 시험범위가 넓은 까닭에 어려운 것이며, 이로부터 천재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저나 대다수 독자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인에게는 필연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문제상황이 파생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 2차공부의 핵심은 ‘밑 빠진 독의 수위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법학류 과목 : 행정법, 국제법

경제학류 과목과는 달리, 법학류 과목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답안을 전혀 쓸 수 없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즉, 기본 원리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세부사항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법리, 관련 학설과 판례 등을 일일이 공부해둘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법학류 과목의 이러한 특징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는 17년도에 수강한 행정법 3순환(박도원 강사님)에서 배운 이른바 ‘누적적 리마인드’를 저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하여 법학류 과목 대비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누적적 리마인드 전략은 박도원 강사님이 주창하

시는 이른바 ‘TRS 학습법’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TRS 학습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박도원 강사님의 Daum 카페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령 ‘밑 빠진 독’일지라도 꾸준하고 집요하고 반복적인 회독을 통해 독의 수위가 미처 낮아질 틈이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활용한 누적적 리마인드 전략은 굉장히 직관적인 전략입니다. 즉, 행정법과 국제법 양 과목의 전범위를 답안지 형식으로, 실전 답안지에 거의 그대로 옮겨적어도 손색이 없을 분량과 밀도로 (즉, 이른바 ‘자기최고답안’으로) 타이핑해 정리/압축한 뒤, 그것만 반복해서 ‘눈에 바르는’ 방식입니다. 물론 자기최고답안의 작성은, 기본서나 강사자료, 논문 등을 종합해서 논리정연하게 배치해야 하니 만큼,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번 작성해두면 끝인 것이 아니라, 추후 순환강의나 답안지특강 등을 통해 꾸준히 검수받고 수정·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최고답안을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법학 공부라 되는 효과 자체가 상당히 큰 데에다가, 시험 막판에 이 자료 저 자료 찾아볼 필요 없이 본인이 작성한 자기최고답안만을 누적적으로 리마인드하는 것만으로 시험준비를 끝낼 수 있으며, 실전 답안지와 호환성도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방금 언급한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학원강의나 스터디를 비롯하여 여러 수단이 동원되었는데, 저는 특히 과거 고시계 잡지들에 실린 행정·사법·외무고시 채점평 등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투고하신 글을 찾아 분석해보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옛날 자료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적용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고,

DBpia 등 논문사이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채점교수님의 시각에서 제 자기최고답안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했었던 것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법학류 과목에 대비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누적적 리마인드’ 전략으로서, 거의 전범위를 ‘자기최고답안’ 형태로 압축한 뒤, 그것을 계속해서 회독하면서 답안 감각을 익혔습니다. 자기최고답안은 처음 만들 때와 처음 눈에 익힐 때가 힘들다는 진입장벽이 있을 뿐이지, 그 장벽만 넘어서면 압도적인 속도(2시간 이내)로 각 법학 과목의 전범위를 1회독할 수 있다는 강력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법학과목에서 공부내용의 휘발성이 너무 강해 고생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누적적 리마인드 전략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법과 국제법은 참고자료의 양이나 공부내용의 분량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따라서 자기최고답안 작성의 난이도에도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비법 자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3) 경제학류 과목 : 국제경제학

국제경제학은 수강인구가 많은 덕분에 (국제법이나 어학류 과목과 달리) 참고자료가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재경직(국제경제학 선택) 합격수기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감히 몇 자 적어보자면, 경제학류 과목은 결국 “기본원리만 성공적으로 이해하면 그 뒤는 피지컬로 어떻게든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국제경제학 과목의 접근법을 생각해본다면, 기본 원리를 이해해내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 즉 여러 문

제를 접하며 ‘경제학식 문제풀이’의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이 과정에서 피지컬 또한 따라붙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국제경제학 연습책(황중휴 강사)’과 더불어, ‘국제경제학의 ZIP(김진욱 강사)’, ‘국제경제학 200제(유창석 강사)’ 등 여러 문제집을 한 번씩 주욱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풀이 연습이야말로 경제학이라는 이름의 ‘밑 빠진 독’의 수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문제풀이 연습과는 별도로, ‘답안작성 스킬’을 다듬기 위한 투자도 약간은 들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 초시때 시험을 몇 주 앞두고 2017년도 재경직 합격자(유예생)분께 답안작성 스킬을 전수받고자 몇 차례 과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때 ① 목차명을 좀 더 가시적으로 (즉, 아래 무슨 내용이 나올지 즉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잡는 것이 좋다, ② 교과서에 실린 그래프 등을 답안에 그대로 현출하면 좋다, ③ 여력이 된다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표 등으로 정리하면 좋다 등과 같은 어드바이스들을 받았고, 초시때 한번 점검해둔 덕에 그 뒤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쫓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경제학 또한 나름대로 단권화 작업을 해두긴 했습니다. 이는 법학류 과목처럼 ‘답안지 형태’로 해두지는 않았고, 시험 당일 날 아침에 좌르륵 한 번 쪽 훑어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전범위 요약정리본에 가깝습니다. 이 단권화에는 제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나, 답안에 작성하면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 (예 : 한정성 원칙, 차선의 이론, 외환시장의 효율성 정리,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을 색깔펜으로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4) 어학류 과목 : 영어, 일어

예전에 어딘가에서, 법학류경제학류 과목은 이른바 ‘보스몹 레이드’에 가까운 반면, 어학류 과목은 이른바 ‘필드몹 사냥’에 가깝다는 인상 깊은 비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즉, 어학류 과목은 그 특성상 논문과목 특유의 ‘논리적 긴장감’이 없고, 단기간에 실력을 갑자기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특징을 은유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학류 과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일찍부터 꾸준히 기본기를 쌓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는 “휴학하고 고시촌에 입성하기 전까지 어학류 과목을 끝내놓자.”는 목표를 세우고, 2차시험 준비를 위해 전력질주할 시기에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아무래도 애매한 측면이 있는 ‘단어 암기’라는 작업을 미리미리 해두자는 주의였습니다. 단어는 미드·일드, 영자신문·일자신문 등 일상에서 접하는 매체들과 더불어, 춘추관에서 출간한 외국어과목 모의고사집 등 기타 자료로부터 모르는 단어들을 추려서 Quizlet이라는 단어장 어플을 활용해서 외웠습니다.

외운 단어들 및 언어감각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는, ① 식사할 때 스마트폰으로 단어장을 자동재생 시켜둔 뒤 단어들을 눈에다가 바르거나, ② 매일 아침 독서실에서 30여분 동안 영자신문·일자신문을 읽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정영한 강사님의 VOCA 30000 책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한영번역이나 에세이에서 구태여 이런 단어들을 쓸 일은 잘 없을 것 같고, 영한번역을 대비하기 위한 것뿐이라면 차라리 그때그때 의역을 하고 마는 게 낫지 않겠냐는 느낌이 들어 금방 그만두었습니다. 한편, 유예생 선배께 2017년 1월 한 달 간 영

어과외를 몇 회 받았었는데, 고시공부 초기에 방향성을 잡기 위해 잠깐 활용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일어난 스테디가 도무지 구해지지 않아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공부했고, 영어는 두어 번쯤 스테디를 진행해보았고 실제로도 꽤 도움이 되었으나 시간 대비 효용이 아주 높지는 않은 듯하여 결국에는 혼자 했습니다.

3. 제3차시험(면접시험)

3차시험은 사실 일단 2차합격 이후 면접스텝이 짜이면 자연스럽게 준비방법을 터득하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론을 본지에 구태여 적을 실익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멘탈 관리 차원에서 면접이라는 행위의 프레이밍을 미리 해두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면접위원님들은 어떻게든 우리 수험생들의 흠을 찾아서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라고 관계설정을 해두는 것입니다. 이런 노선으로 접근한다면, 면접장에 들어가셨을 때 긴장해서 실수하시는 일 없이 무탈히 면접을 치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Ⅲ. 기타

1. 수험공부시간 관련

저는 올해 3순환 기간(3월~6월)에만 공부시간을 따로 재 보았는데, 늘 주당 63시간 안 뛰어있었습니다. 70시간을 넘었던 주는 단 한번도 없었고, 65시간을 넘긴 것도 한두 번 정도 밖에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손목 통증 때문에 책상에 오래 앉아 있기 힘들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차피 손목 때문에 오늘 공부는 텃으니 그냥 놀자.”는 마음을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비록 손목 때문에 오늘 공부 가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 흐름을 최대한 덜 흐트러뜨리게끔 차라리 미드나 일드를 보자.”라는 느낌으로, 어떻게든 그나마 수험공부와 관련된 방향으로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다른 예로는, 코인노래방에 가서 팝송·일본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로 뜨는 영어단어나 한자를 복습하거나, 유튜브에서 영어·일본어로 된 코미디 영상 등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건강관리

건강은 고시공부에 있어 제6의 과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즉, 2차시험 5개 과목 이외에도 ‘건강’이라는 6번째 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5개 과목의 실력이 출중해도, 6번째 과목에서 과락을 받으면 결국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한 투자.”를 막연히 ‘공부 외적인 것’ 혹은 ‘시간 아까운 것’이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이 또한 시험의 일부’라고 여기고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시때 국제법이 평균점수 크게 잡아 먹은 탓에 낙방했었는데, 2017년 2차시험 직후 국제법 때문에 이번에는 도저히 합격할 수가 없겠다고 직감한 저는, 시험 이후 1주일 정도만 집에서 쉬고 바로 다시 신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용 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만약 지금의 제가 당시의 저와 대화할 수 있다면 제발 집에서 좀 더 넉넉히 쉬다 가라고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초시합격을 목표로

로 2017년 상반기에 지나치게(?) 달린 탓에 6월 즈음에는 손목이 육신거리 시험장에 손목 보호대를 차고 들어갔었는데, 고시촌으로 복귀하기 전에 손목을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기를 두었어야 했던 겁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신림으로 돌아와 손목을 계속 혹사시키니 통증은 계속 심해져만 갔고 (정형외과에서 건초염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손목을 쉬게 해주어라.”라며 수험생에게는 불가능한 주문만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물리치료도 침치료도 소용 없었습니다. 급기야 합격하던 해 2차시험을 1개월쯤 앞뒀을 때에는, 손목이 정말 너무 많이 아파서 차라리 올해 시험을 포기하고 몇 달 간 요양한 뒤 내년 시험을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오기로 버텨낸 결과 그 해 합격할 수 있기는 했지만, 직렬수석한 동기와의 점수차가 크지 않았어서 괜한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손목이나 허리, 어깨 등 수험생활에 불가결적인 신체부위가 건강상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시험이 임박한 시점이 아닌 한 차라리 잠시 공부를 쉬어주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손목이야 이미 만성질환이니 ‘손목을 쉬어주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어서 아픈 채로 끌어안고 갔지만, 일과를 마치고 방에 돌아가 요가매트를 깔아두고 10분 내외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어깨, 목, 고관절 등에서 뚜렷한 건강관리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는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에 다니거나 수영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으나 저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건강 관리에 임하지는 못 했습니다. 모쪼록 자신에

게 맞는 건강관리 요령을 조속히 찾아내 수험 생활에 반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필기구 관련

저는 손목 통증 때문에 필기구 고민을 꽤 많이 한 편입니다. 펜도 여러 번 바꿔보고, 만년필 쪽에도 기웃거리 보았고, 엔젤그립 같은 홀더류도 여러 종류를 써봤습니다. 이리저리 떠돌다 결국에 안착한 건 제트스트림101 1.0에 고무그립을 끼워 쓰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직 전까지는 0.7 심을 썼으나, 같이 합격한 스터디원한테서 '0.3짜리 펜으로 쓴 것 같다'는 지적을 받은 (아마 손목이 아파 펜을 꺾꺾 눌러 쓰지 못한 탓일 겁니다) 뒤부터는 1.0으로 굵기를 올렸습니다. 오른손잡이인 저는 펜은 오른손으로, 화이트는 대체로 왼손으로 쓰는 방식으로 손목에의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도 병행했는데, 제일 제 손에 착 감긴다고 느껴지는 화이트인 BiC microtape를 애용했습니다.

IV. 맺는 말

'고시'란 말은 '高시', '考시', '蒿시' 등 여러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시는 '高시'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중요한 일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짊어질 사람을 뽑는 시험입니다. 때문에 고시는 '考시'

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업무를 기계적으로 외워서 처리하는 암기머신이 아닌, 논리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시험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시는 '蒿시'이기도 합니다. 공부해야 할 것이 많아 힘들고, 현직에 계신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업무가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이 시험이 오히려 더 빛나고 뜻깊은 시험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고시라는 시험에 뛰어든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험은 아주 가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 다소간의 희생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온 좋게도 여러분보다 먼저 붙어 뭐라도 된 것 마냥 이렇게 합격수기라는 것을 끄적이고는 있지만, 그게 제가 여러분보다 특출하거나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 또한 이 시험에 붙기 위해 저 나름의 크고 작은 희생을 치러왔고, 그러한 희생이 감사하게도 합격으로 이어진 것일 따름입니다. 제가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면 너머인 테에다가 제 글재주도 부족해 얼마만큼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승을 빕니다.